

## 미국은 '검은 케네디'를 선택했다

오바마 美 첫 흑인 대통령 당선  
선거인단 338명, 매케인에 압승

(총 533명)

관련기사 3·4·5·8·11·20면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47) 대선 후보가 마침내 미 건국 232년 이래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바마 후보는 4일(미국 현지시간) 실시된 대선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며 제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러닝메이트인 조지프 바이든(65) 상원의원은 부통령 후보에 당선됐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의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오바마 후보는 선거인단 집계 결과, 5일 오전 3시(한국시간 5일 오후 5시) 현재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버지니아주 등 27개 주에서 338명을 확보해 20개 주에서 159명을 얻는데 그친 매케인을 더블스코어 차로 따돌리고 대승을 확정지었다.

그는 특히 지난 2004년 민주당 존 케리 당시 후보가 패했던 오하이오(20·선거인단 수), 아이오와(7), 뉴멕

야 할 때가 됐다"면서 "오바마 상원 의원은 역사적인 승리를 통해 자기 자신과 미국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냈으며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도 오바마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민주당은 또 오바마 당선에 힘입어 대선과 함께 실시된 상·하 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둬 대선·의회·지방선거를 석권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 의석 분포에서 56 대 40, 하원에서 247 대 166으로 공화당을 압도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오는 12월 15일 국민이 선출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위상던 소재 국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펜실베이니아 거리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벌인 뒤 백악관에 입성, 공식 집무를 시작한다.

매케인 후보는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

매케인 후보는 "오랜 여정을 끝내

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별관의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단체들로 구성된 '도청보존을 위한 공대위'는 현재 4개월째 도청 별관 철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일고,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미국 신시내티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켄터키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 광주YMCA 이사장,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인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혁 위원장

최 위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제3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위원회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6일부터 오는 2010년 11월 5일까지 2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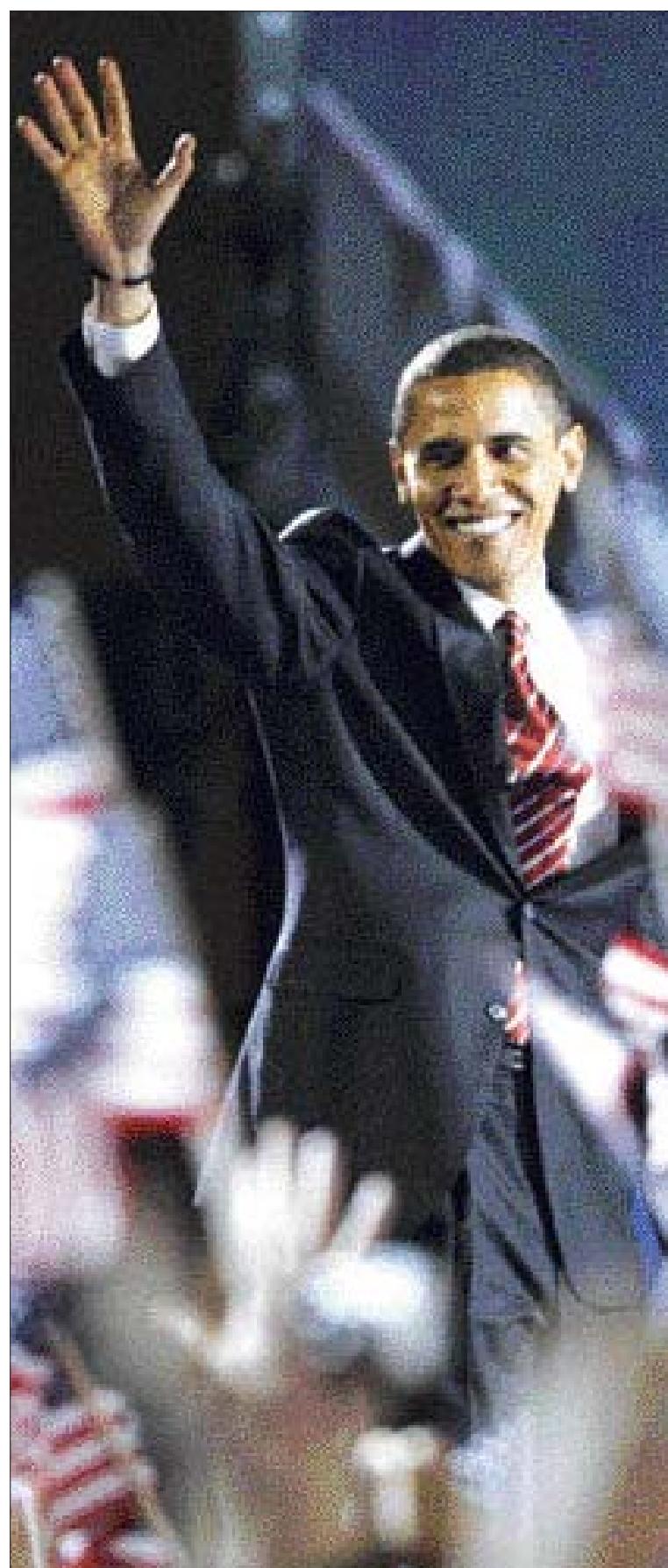
최 위원장의 위촉은 계기로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별관의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단체들로 구성된 '도청보존을 위한 공대위'는 현재 4개월째 도청 별관 철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일고,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미국 신시내티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켄터키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 광주YMCA 이사장,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인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민주당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밤 시카고의 그랜트 공원에서 수락 연설을 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 완화·경기 침체

전남 투자 실현율 30%대 ↓

상담조차 없어

▲ 투자실현율=MOU (투자양해각서) 체결 건수 가운데 투자 당사자 (자체나 기업)가 실제로 투자한 건 수의 비율을 말한다. 투자자는 양해각서 체결 후 각종 규제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실제 투자를 결정 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전남지역 투자실현율이 30%대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전남도내 투자상담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도내 일선 시·군과 기업체의 투자협약(MOU) 체결 건수는 143건으로 지난해 83건 보다 늘어났으나 투자협약이 실제 자본 투입으로 이뤄지는 투자실현율은 31.5%로 지난해 51.8%에 비해 20.3%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전남지역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50% 이상의 높은 투자실현율을 유지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투자상담을 했던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9월까지 무안지역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확실시됐던 수도권의 제조업체인 A사는 투자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또 10월까지 장성지역에 100억원 규모의 물류기업을 설립하려 했던 B사는 투자 규모를 7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투자실현율 추락은 기업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다, 전남지역의 투자여건이 열악하고 최근 들어 경기마저 침체돼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달 평균 10건 정도 투자 상담이 들어오곤 했는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1~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남지역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50% 이상의 높은 투자실현율을 유지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투자상담을 했던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9월까지 무안지역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확실시됐던 수도권의 제조업체인 A사는 투자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이 비교적 덜 미치는 신재생에너지와 조선, 식품가공산업 등 도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고생 거울방학 합숙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주연 1실 기획사 : Power 험사전

서한별자 초청 일시설명회!!!

2008. 11. 19(수) 오전 10시 (광주한전컨벤션센터)

예약 접수!!!

호남한샘 학원

교육상단 : (061) 832-1111

홈페이지 : [www.hansem.com](http://www.hansem.com)

## 亞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최혁 교수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제3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총리급)에 최 혁(61) 전남대 인류학과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청연한의원  
광주 성무자구 MBC워 5층  
전화번호 062-226-0180

교수를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제3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위원회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6일부터 오는 2010년 11월 5일까지 2년이다.

최 위원장의 위촉은 계기로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별관의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단체들로 구성된 '도청보존을 위한 공대위'는 현재 4개월째 도청 별관 철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일고,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미국 신시내티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켄터키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 광주YMCA 이사장,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인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